特輯

'92 현대전자 사업계획

金 大 準
現代電子産業(株) 理事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의지로 탄생한 現代電子는 1983년에 설립된 이래로 연평균 30% 고속성장의 신화를 창조하며 세계 초일류 산업전자 회사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86년 10월 경기도 이천에 32만여평 규모의 대단위 종합공장 완공을 계기로 現代電子는 미래산업의 중추신경인 반도체를 비롯하여 컴퓨터,통신, 전장, 정밀,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연간 10.2%를 상회하는 꾸준한 R&D 투자로 첨단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해 온 現代電子는 88년 PC부문 미 정부 공식 납품업체 자격을 획득했고, 90년 세계 2번째로 3.5″ FDD의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91년도 16M DRAM의 성공적인 개발완료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제 64M/256M DRAM은 물론 노트패드 컴퓨터, 멀티미디어 컴퓨터, GⅣ 팩시밀리, 개인 무선 휴대통신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한발 앞선 경영과 한단계 높은 기술도전으로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진입로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83년 미 캘리포니아에 H. E. A를 설립하여 자사이름으로 컴퓨터를 수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받은 現代電子는 89년 독일에 H. E. E, 91년 싱가폴에 H. E. S등 현지법인을 속속 설립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제품의 해외 판매망을 공고히 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적인 종합전자회사로서의 입지를 든든히 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現代電子가 괄목상대한 성장과 고품위 기술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중시의 경영철학을 밑거름으로 화합과 공영의지를 불태워 왔기 때문이다.

現代電子는 지금 이순간에도 고객의 만족이 곧 우리의 기술이라는 신념하에 인간을 위한 기술도전, 인류를 위한 꿈의 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금년들어 현대전자는 2천년대를 향한 포석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소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올초의 그룹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한 정몽헌회장과 신임 김주용사장의 경영의지를 반영한 이번 조직개편은 각 사업본부별 손익관리책임제 도입을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사업부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 오던 마케팅, 개발, 생산, 영업을 일체화하는 손익관리책임제를 도입했다. 둘째, 반도체를 제외한 컴퓨터, 통신, 정밀, 전장등의 산업전자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전자부문장제를 신설했다. 셋째, 영업현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 영업본부를 독립 운영케 했으며, 독립 유통조직의 개념으로 영업부문에도 손익관리책임을 부여, 전분야에서의 책임관리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넷째, 국내 영업본부내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일체화시켜 컴퓨터 영업을 강화했다. 다섯째, 관리부문은 관리본부와 조달본부로 분리 운영하게 되는데, 관리본부내의 회계관리 분야를 서울사무소와 연계해 기능을 보강하고, 각 사업본부의 자재구매부를 조달본부로 통합 일원화된 구매업무를 통한 구매력 강화를 기하게 됐다.

이러한 조직체제를 기반으로 틀을 형성한 現代電子는 현대 특유의 개척정신으로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급속한 제품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품종 경쟁이 아니라 전략 상품 위주로 개발을 한군데 집중하여 조기 개발을 이룩하고 매출 위주의 양적 팽창보다는 손익구조의 개선이라는 안정적 성장에 치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92년도 現代電子 사업계획의 주

요 골자이다.

가전 3사 체제로 대변되어 오던 국내 전자산업의 판도를 단시일내에 전자 4사 체제로 뒤바꿔 놓은 現代電子는 이제 보다 세계무대에서 앞선 기업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비하여 제2의 도약기로 준비하는 단계로 삼고 있다.

現代電子는 가전을 제외한 종합전자회사로서 주력사업은 반도체와 산업전자이다. 반도체부문은 반도체사업, 영업, 조립등 3개 사업본부와 연구소 그리고 품질 보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90만장의 웨이퍼 처리능력과 10억개의 반도체 조립생산능력을 갖춘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 256K DRAM, 1M DRAM, 4M DRAM, 256K SRAM, 하브리드 IC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산업전자부문은 정보기기, 통신기기, 정밀기기, 신규전장, 전장등 5개 사업본부와 산전연구소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각종 퍼스널 컴퓨터와 중형 컴퓨터 및 주변기기등 컴퓨터 관련기기 생산과 휴대용 전화기등 유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홈 오토메이션 카오디오 전장부품 등이다. 現代電子는 산업의 동맥으로 불리우는 반도체에서부터 21세기를 주도할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첨단 전자산업 전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現代電子의 도전과 의지의 발현인 반도체 사업은 각 2개의 5″ 6″ 웨이퍼 가공라인에서 연간 총 75만장의 1.0마이크론이하의 상보현 금속산화물 반도체 공정기술(C-MOS)을 채택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256K DRAM을 개발한데 이어 1M/4M DRAM과 256K/1M SRAM을 개발 · 양산하고 있다. 또한 EEPROM, EEPLD, Latched SRAM, mask ROM, flash memory 등의 각종 메모리 제품과 주문형 반도체(ASI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공급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반도체 회로설계에서 최종 출하공정에 이르는 완벽한 자체기술을 보유한 現代電子는 전공정단계에 최신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하여 온도, 습도, 공기청정도등 엄격한 작업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신뢰성이 뛰어난 고집적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91년초 16M DRAM을 성공적으로 개발완료하여 세계의 이목과 찬사를 받은 現代電子는 점차 고속화, 저소비 전력화되고 있는 향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첨단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64M/256M DRAM과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불굴의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고객제일주의를 원칙으로 現代電子는 철저한 SPC(통계적 공정관리) 활동과 섭씨 125℃의 내열성 테스트, 최종 육안테스트 등 다단계 테스트를 통해 불량률 제로의 완벽한 제품력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TSOP, LCC, PLCC, SOJ등 각종 패키지 타입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첨단 박막 인쇄기술과, 표면 실장기술 등을 이용한 각종 hybrid IC(혼성집적회로)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위성 통신기기 분야에도 現代電子의 높은 기술력이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액정 TV, HDTV의 핵심기술이며 각종 산업용 장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CD(액정표시장치) 부문에서도 소비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LCD 판넬과 모듈을 개발 공급하는 등 제품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앞선 기술의 노하우를 쌓고 있다.

반도체시장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 14.5%의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침체를 거듭하던 세계 컴퓨터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現代電子는 총 매출액을 5,150억원으로 잡고 안정적 매출과 수익성 확보를 하기 위해 판매망을 정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품을 추구하기보다 기존 제품의 수율향상과 채산성에 역점을 두고 중대형 신규 고객 개발 등으로 거래선을 다분화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판매를 강화할 것이다. 안정적 매출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생산부문에서는 4M/1M DRAM의 수율확대를 통해 판매량의 확대를 꾀하고, ASIC, masked ROM, ASSP등 제품도입으로 fab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으며, 영업부문에서는 OEM business를 적극 개발하고, 유수 반도체 생산사와 marketing/sales 분야의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부문에서는 전략제품의 sample을 조기에 출하하며 품질보증부문에서는 key OEM의 품질/신뢰성 요구에 부응하는 보증 및 관리체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판매망을 정비/강화하기 위해 key customer를 우선적으로 관리 지원하며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장동향, 수요 및 불만사항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경우 시장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sales office를 설립하고, 외국생산사에 대하여 배타적인 일본에서는 일본시장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파견할 계획이며, 광활

한 미국에서는 지점을 보다 많이 신설하고 제품기획 관련 인원을 파견하여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밖에 주요 계획으로서는 marketing 기능을 한결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장분석을 강화하고 제품개발에 우선순위를 수립하며 거래선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사 전략을 입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국내외 전문잡지에 기술관련 광고·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재하고 발송해 나갈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력과 공신력으로 정보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現代電子는 386, 486 데스크 탑 PC, 휴대용 PC등 개인용 컴퓨터에서 CAD용 고해상도 워크스테이션, 데이타베이스에 의한 본격적인 전산업무를 지원하는 중대형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이테크 컴퓨터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

또한 모니터, 프린터, 모뎀을 비롯해 FDD와 ODD 등을 자체 개발하여 각종 주변기기의 국제수준화를 실현한 現代電子는 DOS, UNIX 운영체제의 한글화는 물론 교육용, OA패키지 S/W, CAD/CAM, 전자출판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관계형 데이타베이스 등 각종 S/W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代電子는 H/W시스템은 물론 S/W 개발 공급으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정보회사로서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 있다.

앞선 기술력으로 풍요와 편리의 미래사회를 열어간다는 신념으로 現代電子는 멀티미디어, 광디스크, 멀티프로세싱, 초고속 병렬처리 시스템, 고해상도 컬러디스플레이등 차세대 제품 개발에도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정보기기시장은 시장다변화로 인하여 미국보다 유럽, 유럽보다 동남아 및 동구 유럽등의 기타지역이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급 brand의 양판점을 이용한 판매가 이루어지며, 386SX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NB는 다기능의 NB가 출시가 되고 mono에서 color로 바뀌는 동시에 가격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現代電子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high end version에 주력하여 판매 고부가를 꾀하고 NB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통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super store, consumer channel에 진입하고 corporate market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현지 법인 중심의 market team을 강화하여 시장분석활동을 제고하여 end user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미주·구주의 OEM 거래선을 적극 개발하여 본사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 영업에 있어서는 '92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나, '90-'91년의 심한 가격 경쟁/손익구조 악화로 가격 안정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제품에 의한 수요확대와 손익구조 개선의 경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모니터는 모노의 경우 남미시장의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칼라의 경우는 고급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OEM방식을 적극 추진하여 외형확대를 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제품 판매에 주력하여 수익성에 힘쓸 것이다.

주변기기에 있어서는 중남미지역의 전문 distributor를 적극 개발하여 SKD 추진과 북아프리카 지역 시장 개척을 통해 시장 다변화에 힘씀으로써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21세기 종합정보통신시대를 열어갈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하이테크 통신기기의 개발 보급에도 남다른 열의를 쏟아온 現代電子는 안방의 유무선 전화기, 사무실의 키폰, 자동응답 무선전화기, 위성통신 수신기 등 일상 통신 단말기로부터 팩시밀리, 사설교환기로 연결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신제품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기술의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의 종합관리제어로 편리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창조하는 가정 자동화(HA) 기기와 행동의 자유, 통화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카폰, 휴대폰, 페이저등 종합통신기기 사업으로 신뢰성 있는 고품위 통신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송속도 3초대의 GⅣ팩시밀리, 완벽한 통화품질을 위한 가정용 디지탈 무선 전화기, 휴대폰, 그리고 향후 ISDN망의 핵심역할을 할 대용량 디지탈 사설교환기등의 개발을 목전에 둔 現代電子는 미래의 차세대 개인휴대 무선통신망의 구축과 시공의 한계를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하는 꿈의 통신시대 실현을 위하여 부단한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K/phone이 미국에서 '90 덤핑 관세 부가후 한국제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럽은 '92년 EC시장이 단일화되어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 또한 개방으로 인하여 시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시장에 있어서는 숙박업소가 기계식 교환대를 대체하고 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관공서 및 숙박업소 대상의 중/대용량

은 가격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전화기의 경우는 사무용 및 가정용 저가 보급형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유통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Codeless phone은 25-30%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업체의 신규참여로 가격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ceiver는 위성방송의 channel이 증가하고 program이 다양화되고 있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CMT는 년30%이상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Asia-Pacific 지역은 연 80%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다양한 제품을 축소하여 전략제품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K/P, receiver, CMT등의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시장에 억매이기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전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발 늦으면 10년이 늦는다는 정보통신 기술세계에 출사표를 낸 현대전자는 반도체, 정보, 통신사업에서 얻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대기업, 관공서, 공장, 학교 및 사회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전산자원의 공유를 위한 근거리 통신망(LAN) 시스템 구축은 물론 생활의 광역화에 따른 폭증하는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WAN)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생산력과 기업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은 물론 해외통신망을 구출하여 DB서비스, EDI/MHS서비스, E-mail서비스, 정보통신수탁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VAN) 서비스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기업 및 일반이용자의 정보통신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채널, 쌍방향 통신으로 각광받고 있는 종합유선통신망(CATV) 사업도 추진중인 現代電子는 각종 내부방송, 화상회의, 음성정보, 방범방재, 원격검침시스템등의 설비 및 감리, 유지보수,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 VAN은 data 전송 및 교환 기능에서 부가가치 서비스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LAN은 PC보급 증가에 따른 PC-LAN 시장이 급속성장하고 있으며 WAN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 그룹사 통신망 확장지원 및 자동차 A/S 정비망 구축을 기반으로 미주/구주/동남아/일본지역 등 현 global 통신망을 구축하여 주요 협력업체와 협력관계 체결 및 공동 turn-key 판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대상의 판촉을 강화하고 신속한 A/S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기술의 진보는 광학, 정밀기기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現代電子는 카메라, 복사기, 정밀금형기기, LBP엔진을 비롯한 초정밀사업을 펼침과 아울러 공장자동화 시스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에 이르는 종합정밀사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생활의 풍요와 능률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오토포커스, 줌카메라등 자체기술제품으로 호평을 받은 現代電子는 사무자동화의 첨병인 복사기 분야에서도 꿈의 복사기라 불리는 제4세대 복사기 개발을 목표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중고급기 제품의 판매로 세계 유수의 전문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또한 훈련된 서비스팀을 별도 운영하여 소비자와 한층 밀착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現代電子는 CNC, PLC, 엘리베이터 전자제어장치 등의 기술확보로 공장자동화(FA) 분야에서도 신뢰를 창출하고 있다.

정밀부문에 있어서 카메라는 시장수요가 연간 10% 증가하나 미주시장의 경우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slim type의 대중화로 신규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미국시장보다는 유럽시장을 기반으로 자사 브랜드위주의 판매에 힘쓰며 유럽과 동남아 지역의 거래선을 개척하고 프로모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정보, 통신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現代電子는 각종 자동차 관련 전장부품과 첨단 카오디오 기기 개발공급에도 발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종합전장 제품 메이커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전자제어화에 기폭제가 되었던 전자시간 경보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을 비롯해 환경공해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최소화한 FBM, 고신뢰성 엔진점화장치인 power TR unit, 자동차 안전장치인 keyless entry등 다양한 전장부품의 개발공급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국내외 자동차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달리는 음악실이라 불리는 자동차용 CDP와 150여종에 달하는 카오디오 기기를 공급해온 現代電子는 DCC, MD, 카 A/V 시스템 등 첨단 제품 개발에도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음의 감동이 함께하는 환상의 드라이브,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동차, 공해가 없는 자동차 시대를 위하여 現代電子는 엔진제어시스템(EMS), 자동기어장치

(TCU), air-bag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V 시스템은 물론 첨단 전자장치까지 탑재한 차세대 자동차문화를 현대의 기술로 앞당기고 있다.

전장부문에 있어서 car audio는 전반적으로 가격하락의 추세에 있으며, 미주의 경우는 순정품 장착율 증가로 after market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유럽은 덤핑 문제로 수요가 감소되나 중남미와 동남아는 무역 자유화 영향으로 점차 시장이 개방되고 있다. 現代電子는 저가제품의 수주를 축소하고 중급 이상의 모델에 주력하며 92년 전제품을 가격인상하여 경쟁성 있는 가격으로 상품차별화를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바이어를 통한 카 메이커 OEM을 추진할 것이다.

날로 첨예화되는 하이테크 기술경쟁과 세계 경제 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現代電子는 해외 R&D 센터를 설립하여 첨단기술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매출액의 7.5%에 달하는 8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포함, 총 3천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창업 9년동안 現代電子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투입한 연구개발비는 총 3조원을 훨씬 넘는다.

이와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안정된 노사관계는 現代電子의 성장을 부채질했으며 총매출중 수출이 65%를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종합전자회사로 만들었다. 이러한 저력은 결국 지난해 전반적 경기 부진상황 속에서도 전년대비 40% 성장한 8천 15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전사원이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결과라는 믿음 아래 현대전자는 전사원이 만족하는 기업환경과 전사원이 꿈꾸는 복지문화를 창달하고 있다.

사내외 각종 장학제도와 사내 전문대학 개설, 국내외 연수교육을 실시등으로 사원등에게 무한한 자기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現代電子는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 학교, 공공기관에 컴퓨터 등 첨단 기자재의 기증을 비롯해 대고객 PC 무료교육 실시로 기업의 사회적 소명을 완수하고 있다.

또한 사원 기숙사 대단위 임대아파트 분양등의 후생시설과 국제수준의 실내수영장, 실내종합체육관, 음악감상실, 예법교실, 가야금 피아노 교습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의 지원으로 국내외 타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미래를 향한 기술도전, 인류를 위한 꿈의 창조, 현대의 문화가 현대인의 긍지와 사명감이 되고 있다.

미래문명의 핵을 이루는 반도체에서 풍요와 편리를 대변하는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첨단 종합전자 산업을 개척해온 現代電子는 전사원이 만족하는 기업환경과 전사원이 꿈꾸는 복지문화를 창달하고 있다.

現代電子의 기업문화는 사원들의 안정된 미래설계와 무한한 자기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보다 풍요롭고 가치있는 21세기 인류문화 창조의 터전이 될 것이다.

筆者紹介

金 大 準

1949年 1月 9日生

1971年 한양대학교 졸업

1971年～1975年 국방부 연구원

1975年～1984年 삼성전자(주) 전산실장

1984年～1986年 삼성반도체통신(주) 전산실장

1986年～현재 현대전자 컴퓨터 영업담당 이사